

조계종 '정보보존법' 33년만에 첫 개정 ... 의미는?

박물관 근거 · 지위 분명히

종단 정보보존법 반영 ... 학예사 의무채용 무산 아쉬워

조계종 정보보존법이 3월 23일 제 16회 임시중앙총회에서 드디어 개정됐다. 1972년 제정된 이래 33년만의 첫 개정이다. 정보박물관의 법적 근거 확보 및 정보관리인(사찰 주지)의 정보관리업무 명칭, 그리고 법적 조항까지 신설된 이번 개정은 종단의 강력한 정보관리 의지를 집약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 필요성에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사안에 밀려 중외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던 정보보존법 개정안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올 가을로 예정되는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이 한몫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보박물관은 근거 법령이 없어 '유령기관'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던 차였다. 관장 · 학예연구사 등 종사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였다.

개정된 정보보존법은 제16조에 정보박물관을 "총무원 및 교구 부 · 말사에서 정보의 보존, 관리,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박물관 진흥법에 의거하여 박물관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한 박물관 · 전시관 · 유물관"으로 규정했다. 또 제20조에 관장, 학예연구실,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들먹여 지위를 역할을 명시했다.

정보관리인(사찰 주지)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 규정도 분명히 했다. 제5조에 따

르면 정보관리인은 정보 발견 · 멸실 · 도난 · 훼손이나 문화재 지정 또는 경내 지표조사 및 시 · 발굴조사시 총무원장에 보고해야 하고, 정보의 변동사항을 정보대에 기재해야 한다.

정보관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제23조에 의하면 사찰 주지가 고의로 해당 사찰 정보의 도난 · 멸실 등 발생시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정 조항들은 정보보존에 대한 종단의 의식이 진일보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학예사 채용 의무화 조항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사찰이 많다는 이유로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우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학예사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 사람 채용도 부담스러워하는 사찰의 현실은 박물관 종사자와 사찰 사이의 인식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간극은 학예사의 이직으로 나타나고, 박물관 전문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학예사는 정보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없어서 안 될 존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물의 관리뿐 아니라 교육과 특별전 기획 및 진행, 다양한 학술활동 등이

모두 학예사 손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학예사 없는 정보박물관은 유물 수장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미 개관한 정보박물관들 가운데 대다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전문인력 부족, 전략 부재 등의 요인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예사 채용 규정 완화는 박물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부추김 속에 있고 보자는 식으로 정보박물관들이 건립되고 있어 부실 박물관 양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예사 1인 이상 채용이라는 최소한의 요건마저 명문화하지 못한 것은 박물관에 대한 종단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은 1인 이상의 학예사가 있는 박물관만 시 · 도 등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보보존법이 이처럼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정보박물관 활성화는 많은 부분 소속 사찰의 박물관 육성 의지에 기결 수밖에 없게 됐다. 수백여 군역정보관장 정암 스님은 "한달에 500~700만원의 자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건설하게 운영하리라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도 "불교문화의 보고인 박물관이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news.com

아시아 귀중문화재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동양관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경무)에 이웃나라의 문화재만을 위한 '동양관'이 신설된다.

전시동 3층에 650여평의 규모로 마련되는 '동양관'은 중국 · 일본 · 인도네시아 · 중앙아시아 · 신안해저유물 등 5개실로 구성되며, 수준높은 아시아 문화재 8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유물은 인도네시아의 '붓다(Buddha)', 힌두교에서 지혜와 학문을 상징하는 '가네샤(Ganesha · 코끼리 모양의 신상)', 13세기 일본 가마쿠라시대의 '문수보살입상' 해저 침몰 무역선에서 인양한 중국 13~14세기의 청자꽃병(靑磁魚龍裝飾花瓶) 등이 있다.

특히 가마쿠라시대 문수보살입상은 목조 작품으로 나무에 금칠과 채색을 하고, 금 조각을 덧붙여 장식돼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갑(劍)과 연꽃을 오른 손과 왼 손에 들고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11만관을 보살과 미국 아시아사사이어티의 지장보살과 함께 가마쿠라시대의 전인(轉印 1197~1258)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9>

파동과 공상상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 그리고 최근 일본 규슈에서 일어난 지진이 엄청난 파장을 주고 있다. 알려져 있지 않던 지진대의 발견. 지진이 물고 오는 해일과 같은 재해가 인간이 얼마나 자연 앞에서는 작은 존재인가를 일깨우고 있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기가 필요한 때다.

해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파동이라는 형태로 전해진다. 햇빛이 지표에 도달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선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해일 역시 단층의 형성이라는 큰 에너지원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된 파동이다. 이 에너지의 전달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매개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데,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어느 한 위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빛을 얇은 틈으로 지나가게 하면, 이 빛이 굴절을 일으켜서 희미한 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자연 앞에서는 작은 존재인가를 일깨워 주며, 재해를 초래하고 하는 탄소덩어리가 산소와 반응해서 순간순간 탄산가스로 변화해서 공기로 사라지는 현상을 내 눈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탄소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하나의 파동 상태가 산소라는 다른 파동을 만나서 탄산가스라고 하는 다른 파동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물체와 공간이라는 이분법적인 관념을 바꾸고 있다. 또한 존재론에 대한 현대철학에 가장 큰 변

물질과 공간,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관계

'실체 없음' 깨달을때 또다른 '나' 만나게 돼

해일인 경우 매시간 약 100Km 전달된다고 하니, 가까운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여유시간이 얼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매개체뿐만이 아니라 파동을 느끼고 재해를 당하는 물질(인간을 포함해서) 또한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현대에 들어서 과학이 가르쳐 주는 메시지이다. 즉 어느 한 공간을 차지하는 듯 보이는 물체 또한 사실은 파동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순간 순간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과학은 물질을 10억분의 1 미터 정도로 작게 하는 경우 나타나는 성질을 연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영역으로 갈수록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동의 성질을 띠게 된다.

화를 준 개념이기도 하다. 물질과 빈 공간을 다른 두개의 축으로 나누면 존재론에서 이제의 물질이 공간에 영향을 준다. 공간 또한 물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이러한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나를 괴롭힐 때, 촛불 앞에 앉아 보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촛불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이와 같음을 느껴보자. 나라고 느껴지는 관념 또한 사실은 촛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다보면, 그렇게 변치 않고 따라 다니던 나라는 관념 대신, 공간과 다르지 않은 나라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교사상과 문화' 5집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

국제불교문화사상학회(회장 송석구)는 최근 <불교사상과 문화(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5집을 간행했다. 이번에 간행된 제5집에는 영국 런던대 교수 카멜 워너의 '불교와 평화', 덴마크 한국학연구소장 헨릭 쇠렌센의 '신인(神印)과 총지중 그리고 고려시대 밀교수행의 본성에 대하여', 조은수 서울대 교수의 '잡재태와 현실대의 대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불교교육에서 불설의 배양' 등 국내외 11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송석구 회장은 "〈불교사상과 문화〉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서지학 수준 일본에 펼쳐

박상국씨 日 다이쇼대서 박사학위

불교서지학 권위자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사진)이 최근 일본 다이쇼(大正)대에서 '한국불교서지학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상국씨는 한국의 불교전적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로, 현존 최고(最古) 사경인 '신라백지목서대방광불화엄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신라시대 것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초조대장경'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 의원의 '교장(敎藏)',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원사 · 기림

사 북장전적에 이르기까지 전시대의 주요 불교전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박사논문에는 일본 내 기존 학술을 뒤엎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1011년 출판된 초조대장경이 76년 걸려 새겨진 것이 아니라 고려 현종때 새긴 것임을 밝혔고, 재조대장경의 판간은 1236년부터 1251년까지가 아닌 1232년부터 1248년까지임도 확인했다. 또 그 판각 장소가 강화 선원사가 아니라 경남 남해임을 입증해 보였다.



그 동안 '속장경'으로 알려져 온 장소(章疏)를 '교장'으로 불러야 한다는 논증도 빠지지 않았다. '속장경'이란 명칭은 1911년 일본의 불교학자인 오노 겐묘(小野玄妙)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그대로 따라 쓴 것이다. 박 실장은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해 1997년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이번 학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부터 '교장'으로 고쳐져 소개되고 있다.

박익순 기자

<h3>불자정보</h3> <p>경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성명증명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p> <p>· 사찰안내: 규격 5×5cm 50,000원</p> <p>전화: 02)732-1522 (直)</p>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밀양시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 기타: 부속건물 ● 종교용지: 11,060평 ● 표고: 100m, 우물: 1개 ● 연건: 3천만원 수의보장 ● 가액: 10억 <p>055)352-4733 055)352-1855</p>	<h3>포교당(금)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총평수 110평 ● 건물: 요사채 2층 ● 법당: 35평 ● 특징: 일원불, 전불 모셔져있음 ● 가액: 3억 5천만원 <p>011-9853-3843</p>	<h3>산과 시냇물이 흐르는 사찰</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광역시 팔달동 ● 평수: 250평(문중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2, 거실, 식당, 화장실) 실의 화장실3 ● 가액: 3천9백만원 <p>011-9587-7447</p>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포항 죽장하곡 ● 대지: 200평, 전 500평, 요사 30평, 법당 ● 산세수려 ● 가액: 1억 4천만원 <p>010-6462-0343 054)262-6673</p>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노원구 중계동 10면 중계, 불암산 밑 ● 건물: 35평 (법당 16평), 방2개, 화장실 3개 ● 종평수: 85평(법당, 단독 산골집) ● 가액: 전세 3천5백만원, 시설비 1,200만원 <p>02)932-7659 011-709-7659</p>	<h3>암자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밀양 무안면 ● 답 1,300평 (대지 130평) ● 입법당 15평, 방5개, 창고, 공양간2 ● 정동향, 양지바르고 물이 좋음 ● 가액: 3천만원에 월50만원 ● ※ 즉시 법회가능 <p>011-1766-1093</p>	<h3>사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남해군 남면 덕원리 석불암 ● 부지: 약 1,0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삼성각10평, 지장당10평, 관공 대웅전1개, 대웅전1개, 부속 화장실, 주차장 1면 ● 새 건물, 앞엔 골프장 신축중, 10분 거리에 스포츠파크 있음, 전망수려 ● 가액: 3억 <p>055)862-2022 011-627-0290</p>
<h3>토굴, 펜션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1,631평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5억 3천만원 (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위의 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 주인직접 쓰고 관리해 줌 <p>016-367-2112</p>	<h3>사찰터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거창 신원면, 황매산 줄기 거창 IC에서 차로 약 20분 소요 ● 이만평, 평당 4천5백원 ● 약 600고지 ● 포장된차량진입로 ● 물, 경관 수려한 명터 <p>017)546-7010</p>	<h3>암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밀양시 얼음골 ● 총평수: 전답 임 포함 약 3천7백평 ● 가액: 13억, 현주위시세 평당 30만원 ● ※ 명산, 계곡, 절경 등산객 피서객 항상 많음 <p>010-4876-5535 011-877-7677</p>	<h3>포교원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계1동 (부계역 5분거리) ● 평수: 48평(4층 건물 2층,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웅전 포함) ● 주차: 도로상 11대, 대웅전 주차 ● 전세: 50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월세가능) (삼천포 영단복사기, 팩스 등 전기류 일체) ● 불법행위와 신심있는 분들을 위해 바로 운영 가능 <p>017-269-2629 032)517-3001</p>

하기척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 가 내 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주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지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예연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 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도에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령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